



노송동 현대해상 건물 전주시청사 별관으로

전주시, 현대해상 측과 빌딩 매입 계약 체결

41년 만에 시청사 별관 확충 절차 마무리

행정기관 분산 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전주시 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이 전주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일 전주시청사 별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사 별관 확충을 통해 분산된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해상 측과 현대해상 빌딩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시는 전주시청사가 건립된지 41년 만에 청사를 확충하게 돼 공간 부족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의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건물 매입비 약 235억원과 공사비 52억원, 용역비 3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사업 초기 종합계획에서 별관 확충에 8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던 것에서 빌딩 매입을 통해 사업 규모와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특히 기존 청사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현대해상 빌딩을 매입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현재 대우빌딩(22개 부서)과 현대해상

(13개 부서)으로 분산된 행정기관 운영에 따른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향후 전주시청사 별관으로 활용될 현대해상 빌딩은 완산구 서노송동 619-11에 위치한 연면적 1만 4,616㎡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하층은 122면의 주차 공간과 기계·전기실·중앙통제실 등을 포함한 시설 관리 구역이며, 지상 1층에는 시민 접견 공간과 안내데스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별관 1층은 접견실 및 로비, 2층은 회의실과 대기실로 구성돼 내부 협업과 시민 상담 공간으로 활용되며, 3층에는 정보화정책과와 전산·통신실이 본청에서 현대해상으로 이전 배치될 예정이다.

건물 4층부터 13층까지는 분산된 5국 29과가 통합 배치되고, 14층에는 직원 복지를 위한 여성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PT룸, 사위장이 위치하게 된다. 또, 최상층인 15층에는 240석 규모의 강당과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 시민

과 직원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이와 관련 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별관 확충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난 1983년 신축된 현 전주시청사가 당시 기준 인구 41만명을 바탕으로 설계된 만큼, 전주시 인구가 64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 공간 부족과 시민 불편 심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 등으로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청사 확충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04년 이후 △가존 부지의 증축 △주변 부지매입을 통한 신축 △기존 부지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현대해상 빌딩 매입을 통해 20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향후 단계별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지방재정 전환 계획을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청 별관 확충은 단순히 행정 공간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복기 기자

“축복받는 내년 오기를”... 전동성당서 성탄 미사



성탄절을 맞이한 25일 전주시 전동성당을 찾은 신자들이 성탄미사를 드리고 있다.

토하 완전양식 기술, 환경개선 산업으로 확장

전북자치도, 국립생태원과 자연생태계 보전 산업활성화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과 공존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존을 위한 산업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초 확립한 토하 완전양식 기술을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환경개선 산업으로 확장해 친환경 수산양식과 자연생태계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토하 녹조류 소비 습성을 활용한 부영양화 호소 개선 △양식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산업 분야별 협력 △지역 생물자원 연구 교육·전시 협력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을 시작해 2022년 전국 최초로 토하 대량양식 기술을 확립(특허 4건)했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누구나 쉽게 양식가능한 토하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국민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존을 위한 산업활성화 업무협약식.

양식 산업화 구축 전략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토하란 민물새우류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국내 약 7종이 존재하며,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토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뱅이’이며, 전북자치도는 이 새뱅이에 대한 완전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새뱅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사체와 물속의 미세조류 등을 소비하는데, 이런 특성으로 국립생태원은 새뱅이를 활용해 연못과 호수 등에 이끼 제거와

탁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전북자치도 수산기술 연구소와 함께 미세조류 활용 수생태계 환경개선 예비 실험연구를 진행,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새뱅이의 미세조류 소비 습성을 활용한 생산량 증대 등 여러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친환경 양식생산과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을 이뤄 나갈 여러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하 산업의 다방면 확대 외,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과 고유 서식종에 대한 보존 연구, 기관 및 부서별 관련 전문 교육 추진과 정보 교류, 상호 전시관 운영을 통한 대국민 볼거리 제공 등 민생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인 계획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내수면 양식업에 신종 새뱅이의 다양한 산업 진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생태원과 함께 각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분야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공모 전국 1위

남원시, 국비 100억원 확보... 도내 최대 60ha 스마트팜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남원시가 전국 1위로 선정돼, 전북 최대 규모인 60ha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지역농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10ha 이상 조성하

고,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며, 농업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남원시는 대신면 일원에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7.3h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2.5ha) △스마트팜 혁신단지(5.4ha) △스마트원예단지(23.8ha) △친환경

스마트에너지타운(1ha)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첨단 농업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수료한 청년농들에게 기본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해 영농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농업 인재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남원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은 전북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